

광주 장애인에겐 높은 '관람 장벽'

전국 공연장, 보조 장비·해설 등 '배리어 프리' 시설 구축 추세에도 광주는 올해 관련 공연 계획 부진 "심리적 관람장벽 개선에 관심"

전국 공연장들이 노약자 및 장애인 관람객들의 유·무형 '관람 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시청각, 휠체어장애인 등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구축하는 것이 전 국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은 '접근성 공연 제작'과 '공연 접근성'을 주제로 워크숍 계획을 밝혔다. 예술극장은 올해 장애인 관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보조 장비, 시설을 설치한 '접근성 공연'도 10편 기획했으며, 지난달부터 릴레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창작자 중심의 접근성 언어 개발'을 기치로 음향해설, 자막해설, 수어통역 공연도 개발하고 있다. 축가카드 등을 접목한 공연·전시 프로그램도 이목을 끈다.

나아가 무용 작품을 관람할 때는 진동 기능이 내장된 우퍼 조끼를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통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우퍼 조끼는 단순히 떨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 맞춰 별도로 진동 방식을 디자인했다.

지난해 3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은 어떻게 개·보수 초기에는 장애인 관람객들이 대극장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진입 가능하도록 입구가 보수됐다.

대극장 대표수 데스크는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되는 등 여러 요소가 도입됐다. 소극장 일원에는 점자블럭이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차장부터 대극장으로 가는 동선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휠체어 장애인이 공연장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 등을 경유해야 하는데, 막상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 자체가 경사로라는 것. 리프트나 안전



장애인과 접근 가능하도록 데스크를 낮게 설계한 광주예술의전당 티켓박스.

바 설치, 경사로 완화 등 방법 모색이 필요해보였다.

접근성 공연은 이 같은 물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심미적으로도 '장벽'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전당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한 '접근성 공연'이나 '배리어 프리 공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문화예술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ACC 어린이극장에서 오는 11월 16-17일 펼쳐지는 '무장애 공연'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 공연예술 시설

에서는 관련 공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문화재단도 올해 배리어 프리 공연 계획은 부진하다. 유사 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이 있지만 그마저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삭감됐다. 올해는 양경모(시각·전동민(청각)·이혜선(뇌병변) 세 명 장애인예술가가 시각 분야(총장 22 작가레지던스)에서만 활동하고 있으며 공연분야 계획은 전무하다.

반면 서울에서는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을 막론하고 '접근성 공연'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장애인 관람객들도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전 국민이 평등하게 공연문화를 향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달 23일까지 펼쳐진 드라마극 '그것은 너의 말이다'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한글 자막해설을 곁들여 진행했다. 사전에 대본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음성 소개까지 접목, 장애인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전 회차에 자막 해설을 곁들인 연극 'GV빌런 고태경' (30일까지)도 주목할 만 했다.

아울러 청소년극 '광!' (22-30일)은 자막해설과 수어통역을 제공했다. 작품에 출연하는 '수어통역사'는 단순 번역 역할을 넘어서, 예술 표현을 추구하는 '스토리텔러' 역할까지 맡게 됐다. 배우 황순미의 음향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발레극 '부엔 카미노' (28-30일)도 상연했다.

나아가 아르코는 최근 시각장애인 관객 등을 위한 '터치 투어'도 진행했다. 본 공연 이전에 무대에 올라 시설물, 조명, 세트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관객을 우선 선발했다.

예술극장이 추진하고 있는 예술가를 위한 '접근성 워크숍'도 참조할만한 사례다. 오는 7월 말부터 공연기획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막해설 제작 실습', 9월부터 '촉각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상임활동가는 "최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섬 옆에 섬' 공연을 관람할 당시, 음향기기가 장애인석을 침범해 객석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장애인 관람권은 열악한 상황이다"며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이 '배리어 프리 공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보완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음악·그림 콜라보 '색채의 멜로디'

아르플래닛,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지난 4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펼쳐진 아르플래닛 창단연주회 장면. <아르플래닛 제공>

인상주의 작품인 드뷔시, 라벨의 곡과 지역 신진작가 유소연의 '위안의 여정'이 어우러진다.

아르플래닛(대표 최혜지)이 '색채의 멜로디' 공연을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목요관서트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형 스크린에 유 작가의 그림을 송출하는 등 클래식 피아노 공연에 시각적 요소를 더했다.

피아니스트 최혜지는 드뷔시 '꿈'과 피아노를 위하여 중 1번 '프렐류드'를 연주한다. 이어 백제준은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드뷔시 곡 '달빛'을 들려준다. 서정적인 피아노 모음곡인 '베르가마스 크 모음곡' 중 하나인 '달빛'은 한밤중 은은하게 달빛이 내리는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곡이다.

김민호는 드뷔시의 '렌토보다 느리게', 라벨의 '겨울 중 3번 바다 위의 조각배'를 연주한다. 끝으로 정재은-양다원은 포핸즈 피아노곡인 드뷔시 작

'4개의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출연진은 모두 아르플래닛 소속이며, 전남대 음악학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아울러 유소연 작가는 지난해 말 유스퀘어 금호 갤러리에서 '위안의 여정: 13월의 어느 날'이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치렀다. 작가의 그림에는 자신의 성을 본떠 만든 '유동기'라는 당나귀가 자주 등장한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당나귀로 표상했다.

최혜지 대표는 "인상주의 음악"은 '인상주의 회화'와 유사하게 강렬한 감정을 묘사하는 표제음악적 성격 보다, 암시나 분위기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연주회는 인상주의 사조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음악과 회화의 교집합을 발견하고, 두 장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했다. 입장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이명한 작가, 日 양심 작가 문예지에 추천사

'책과 인생' 7월호...해방 후 한중일 시민 연대 활동 '마쓰다 도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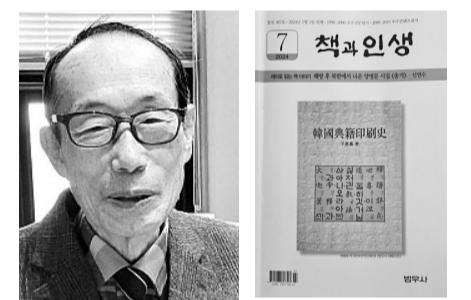
지역 최고령 원로작가이자 시대의 어른인 이명한(사진) 소설가가 일본 양심 작가 마쓰다 도키코를 평하는 추천사를 월간 문예지에 게재해 눈길을 끈다.

월간문예지 '책과 인생' 7월호에 실린 '마쓰다와 조선 출판에 즈음한 추천사'가 그것.

마쓰다 도키코 작가에 대한 추천은 고(故) 문병란 시인이 발표한 글(「하나오카 사건 회고문-추천의 글」)에 이은 두 번째다.

이 작가는 "마쓰다는 해방 이후에도 김일수라는 조선인 정용자 출신과 함께 조선인 집에 기거하면서 조선인 희생자, 중국인 희생자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했다"며 "그리고 김일수와 함께 중국인 유골 송환을 위한 한중일시민 연대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인과 함께 실천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마쓰다는 조선, 조선인을 주제로 삼아 회고록이나 작품을 집필하기도 했으니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활동한 셈이다"며 "우리의 저항시인을



일본에 알리고, 마쓰다 도키코와 같은 양심 작가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문학적 상호주의인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 출신 이명한 작가는 일제강점기 저항 소설과 저항시를 발표한 이석성의 장남이다. 이 작가는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 한국문학평화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명한 중단편전집' (5권)을 펴냈다. 당시 출간한 전집에는 반세기 동안 견지해온 역사 의식과 시대정신을 담은 작품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 문학의 미래 투표해 주세요"

예스 24, 14일까지

김בל라, 김선오, 김지연, 김희진, 단요, 박상영, 박서연, 박찬세, 서이재, 성해나, 조예은, 정예 작가.

위 작가들은 창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진 작가들로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한국 문학의 미래를 가능하고 도모할 수 있는 작가들로 평가 받는다.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선정

하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예스 24는 오는 14일까지 100% 온라인 독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월 14일까지 총 4주간 매주 1회씩 총 4회 투표가 가능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는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문학을 매개로 한 소통을 활성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후보자는 앞서 거론한 총 12명. 매 투표 참여 시 리뷰드가 지급되고, 4회 투표 완료할 시

3000원의 YES상품권과 크레마클럽 30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예스24 도서 1팀 김기욱 담당자는 "이번 온라인 독자 투표는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별 굿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가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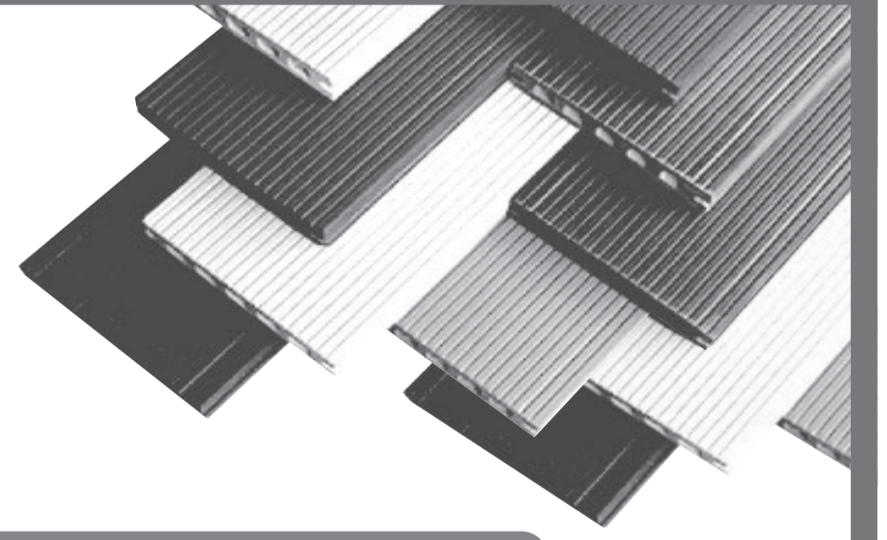
한편 예스24는 이번 투표 행사를 기념하는 특별 굿즈도 준비했다. 12명 작가의 대표작 문장이 담긴 책갈피로, 후보 작가들 작품을 포함해 이벤트 도서 구매 시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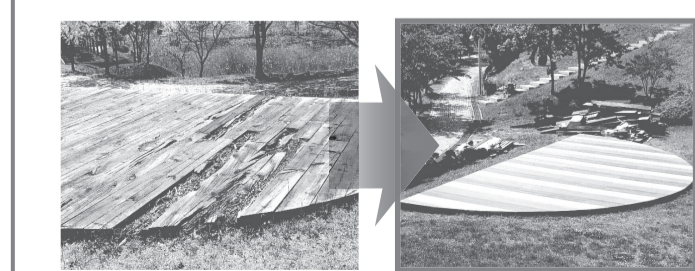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